

김정범, 그의 신비

한국의 건국 신화에서는 꿈이 여자로 변신한다. 마찬가지로 작가 김정범은 동물을 사람으로 변형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동물성을 부여한다. 작가는 새나 개를 먼저 조각하고 나서 거기에 손과 발을 더 추가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먼저 조각하고, 이집트인들의 미이라를 감쌌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여러겹 흙으로 덮어 씌우는가?

실제에 있어서 작가 김정범은 전혀 신화를 해석하려 들지는 않는다. 그는 끝없이 흙을 가지고 놀며, 세상을 주무르고, 재창조하고, 또 파괴하는 어린아이가 돌아간다. 그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그저 단순히 외관만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하나 작품들의 옷을 벗기고 껍데기를 한겹한겹 벗겨내야 한다. 이 둔감한 형체의 이면에 풍부한 비가시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품하나하나를 이런 저런 뜻으로 해석해서 일소해 보려 한다면, 작품을 감상하지 말아야한다. 작가는 서로 상반되는 예상 밖의 여러 형태를 조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미학적인 충격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설적인 여지와 마주칠 때 우리의 영혼은 작가의 의식과 만나게 된다. 때로는 인물을 짓누를 정도로 둘러싸기도 한다. 사람은 언제나 보기 흉하게 변형되어 있거나, 절단되어 있거나 은폐되어 있다. 최근 작품들 속에서야 비로소 우주가 덩어리에 우주를 조화롭게 합치시킨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작품 전체 속에서만 빛이 조명 조명되는 반면, 일련의 구성요소들 없이는 전체가 존재할 수 없는 한편의 촌극이다. 이 구성요소들은 연극에서의 여러 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와 흡사하기도 하다.

작가 김정범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라 폰텐느처럼 작가는 인간에 대해 더 잘 표현하고자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 인간과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 인간의 원초적인 진리, 영원한 특징들, 즉 사랑, 자애로움, 화합, 화려함, 잔혹성, 고독을 회복시켜 준다. 작가 김정범은 한 개인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신비한 형상들 속에서 무엇이 한 인간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만드는지 각자 발견해 내야한다. 개인 속에 감추어진 보편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작가는 절대적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이 조각품들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것들을 만져보고, 또 감상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추억 속의 요람을 되찾게 되리라.....